

금메달 잔치? KIA는 초상집

이의리 석연찮은 대표팀 탈락에 최원준은 부상으로 이탈 마지막까지 피말리는 순위싸움 속 잇단 악재에 애만 태워



프로야구 9개 구단이 '아시아안게임 금메달'로 잔치 분위기지만 KIA 타이거즈만 초상집이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대만과의 결승에서 2-0 승리를 거두고, 대회 4연패를 이뤘다. 쉽지 않았던 승부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플레이로 우승을 이뤘지만 대회 시작부터 스포

트라이트는 다른 곳으로 향해있었다. 비상식적인 이의리의 대표팀 탈락 논란의 여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의리의 교체에 대해 고심 끝에 조계현 KBO 전력강화위원장과 류중일 대표팀 감독이 내세운 핑계는 '손가락 물집'이었다. 그것도 부상이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 우려'를 탈락 사유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뜨거웠다. 대표팀 소집 전날 황당한 탈락을 경험한 이의리는 하지만 이후 팀 세 경기에서 18이닝을 소화하면

서 2.0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지난 9일 삼성전에서는 올 시즌 최다 투구수를 115개로 늘리면 10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정작 부상자 명단에는 외야수 최원준이 올랐다. 대표팀에 선발된 최원준은 이번 대회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유는 종아리 부상이었다. 그것도 항저우 출국 전이었던 9월 27일 대표팀 훈련 도중 입을 부상이 문제가 됐다. 주루 훈련 도중 타구에 종아리를 맞으면서 몸상태가 좋지 못했던 최원준은 결국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하고 부상자로 팀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KIA 지정병원인 선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종아리 근막 및 근육 미세 손상 진단을 받았다. 재활에 6-8주가 걸리면서 올 시즌 초반

에도 어깨부상으로 고전했던 최원준은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마지막까지 피말리는 순위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원준이 이탈하면서 KIA에 악재가 더해졌다. 여기에 최지민은 대회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선배들의 이런저런 상황으로 마냥 축하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최지민은 첫 대표팀인 만큼 올림픽과 WBC 경험에 있는 팀 선배 이외의리와 동행을 내심 기다렸다. 하지만 이의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표팀에서 낙마하면서 시작부터 마음이 편치 못했다. 여기에 유일했던 팀 선배 최원준도 대회기간 부상으로 마음 고생을 했다.

최지민은 "의리형과 같이 못가서 많이 아쉬웠다.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소집했을 때부터 의리형 생각을 많이 했다. 원준이 형도 다쳐서 선수들한테 많이 미안해했다"고 언급했다. 설상가상 부상으로 아시안게임으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금메달을 목에 건 '천적' 박민(두산)이 13일 KIA전에 맞춰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한 경기 한 경기 살얼음 승부를 하고 있는 KIA에는 악재 아닌 악재다. 9개 구단 팀들이 금메달 우승과 함께 그에 따른 '병역혜택'으로 웃음 지는 동안 KIA는 심신을 다친 소속 선수들로 애를 태우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지민 "하나 돼 만든 금...올 시즌 행복한 해"

호주리그 많은 경험 통해 자신감 올스타전·태극마크에 금메달까지 팀 최대한 올라가도록 힘 보낼 것

"팀이 가을 야구 가는 게 목표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금메달리스트 최지민이 "잘 던지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다 같이 우승이라는 금메달이라는 성과를 얻어서 행복하다"고 금메달 소감을 밝혔다.



최지민

KIA 최지민은 지난 8일 폐막한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 선발돼 한국의 대회 4연패의 주역이 됐다.

거침 없는 피칭으로 눈길을 끈 최지민은 특히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문동주(한화)에 이어 7회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와 끝까지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 하면서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문동주의 6이닝 무실점 호투에 이어 최지민까지 마운드 싸움을 해주면서 한국은 2-0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확정했다. 생각 보다 쉽지 않은 상대들이었다.

최지민은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다들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사회인 야구라고 하는데 실력 야구 선수들이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 선발로 나온 투수도 1라운드 지명이 유력한 선수라고 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다"며 높아진 아시안게임 수준을 이야기했다.

조별리그와 똑같이 문동주와 대만 리어우민이 맞붙은 결승은 팽팽한 마운드 싸움 양상이었다.

최지민은 "앞에서 동주가 워낙 잘 던졌다. 불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내가 스타트였고, 잘 이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잘 던져서 기분이 좋았다"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긴장 안 되고 잘 던지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고 결승 상황을 이야기했다.

앞서 한국은 대만과의 조별리그에서 0-4패를 기록하면서 우려의 시선을 받았다.

최지민은 "지고나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안 좋은 시선도 있었는데 끝난 것이 아니니까 결승전에서 복수할 기회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 결승에서 복수하자는 생각들이었다"며 "설욕전이니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선발부터 해서 선수들 모두 한 마음으로 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1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국가대표였던 만큼 최지민의 감격은 더 컸다.

강릉고를 졸업하고 지난 시즌 프로에 뛰어난 최지민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시즌을 보냈다. '미완의 대기' 최지민은 그러나 지난 겨울 반전의 시

간을 보냈다. 최지민은 "작년에 2군에서 많은 훈련을 했고, 질푼코리아 가서 많이 던지면서 자신감을 찾고 왔다. 그게 나에게 반한점이 없었나 싶다"고 말했다. 시즌이 끝난 뒤 질푼코리아 소속으로 호주리그에 뛰었던 최지민은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그게 올 시즌 성적으로 이어졌다. 시즌 전에도 '기대주'였지만 현재 최지민은 KIA 불펜의 핵심 선수다. 최지민은 "올 시즌은 행복한 해다. 올스타전도 나가고, 태극 마크도 달고, 금메달도 따니까 감격스러운 해였던 것 같다. KT (박)영형이랑 농담으로 작년이었던 대표팀에 못왔을 텐데 좋은 성과를 내서 꿈만 같다"고 웃었다. 리그를 이끌어갈 대표 선수들과의 시간을 통해, 또 금메달이라는 성과를 통해 최지민의 꿈은 더 커

졌다. 최지민은 "친구들과 같이 대표팀 간 것도 좋았는데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형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다. 아무래도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다"며 "첫 국제대회 나갔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계속 대표팀에 나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원했던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지만 팀 상황을 생각하면 우승을 즐길 여유는 없다. 최지민은 10일 SSG전에 맞춰 엔트리에 재등록했다. 최지민은 "우승은 어제까지이고 팀에 합류했으니까 팀이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팀이 가을 야구 가는 게 목표다.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포스트 시즌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3 대한장애인골프협회장배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테스트이벤트' 참가 선수들이 지난 8일 영암파크골프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전국장애인체전 파크골프 테스트이벤트 성료

영암서 17개 시·도 300여명 참가

오는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파크골프 종목 테스트이벤트가 영암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7-8일 영암파크골프장에서 '2023 대한장애인골프협회장배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테스트이벤트'를 개최했다.

대한장애인골프협회와 전남장애인골프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 선수단 300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지체(휠체어포함), 뇌병변 개인전, 2인

조 단체전, 혼성 4인조로 나뉘어 종목별 18홀로 진행됐다. 전남도 선수단은 21명이 출전해 코스 분석과 상대 팀 기량을 점검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파크골프 종목은 17개 시도선수단 228명이 참가한다. 전남도 선수단 19명이 출전해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래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영암에서 열린 파크골프 대회가 성황리에 마쳐 기쁘다"며 "11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시체육회 체육발전·인재 양성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사진 왼쪽)는 최근 학교 행정관 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와 지역 체육발전 및 체육분야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체육 산업·교육 분야의 연구 및 교육협력 ▲체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및 실습 지원 ▲체육관련 정보 공유 및 인적·물적 교류 ▲공동 R&D를 위한 연구 교류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닌 학생들에게 신체적 자극과 운동능력을 배양하는 체육이야말로 가장 효과적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축구, 농구, 태권도부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대학교는 앞으로도 광주시체육회가 지향하는 미래 청사진에 적극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체육인을 대표해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대학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광



주대학교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초·중·고와 프로팀 연계육성 체계가 잘 갖춰진 종목의 광주대학교 팀 창단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30일
2관	더 년 2
3관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만강홍: 사라진 밀서, 80일간의 세계일주
4관	화란
5관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6관	30일
9관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만강홍: 사라진 밀서, 극장판 영영이 탐정: 미스터리 가면~최강의 대결
7관	씨네커블 1947 보스톤
8관	씨네커블 화란, 크리에이터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 2023-10-17(화) ~ 22(일)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소극장, 잔디광장
문의 : 062-613-8233

소리극 <클비츠와의 대화>
일시 : 2023-10-17(화) ~ 18(수)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